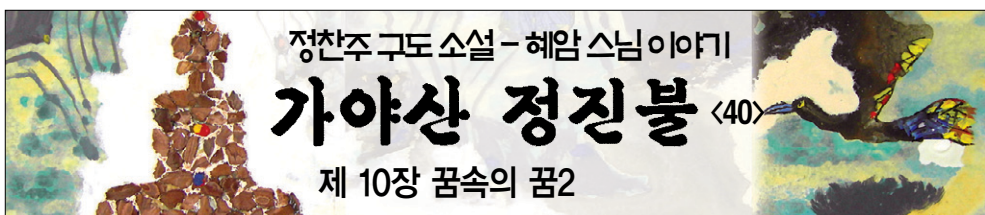


“좌선은 몸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앉아 있는것”



강원에서 겨울을 보낸 성법은 바람에 겨울양말 한 켤레를 넣고 지리산 문수암으로 향했다. 어느 신도가 해제 날 대중공양으로 강원 화인들에게 한 켤레씩 나눠준 겨울양말이었다. 성법은 자신이 신기보다는 아직 한 번도 씌지 않은 은사 해암스님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성법은 버스를 타고 함양으로 갔다. 버스가 함양에 도착하자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다. 성법은 함양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마천에서 내렸다. 지리산은 이미 설국으로 변해 있었다. 성법은 시골 촌부들에게 물어 영원사 조입까지 눈길을 걸어갔다. 그곳에서 가파른 지름길을 타야만 상무주암을 거쳐 문수암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성법은 영원사 가는 길에 형성된 마지막 산촌마을을 찾아들어 길을 물었다.

“문수암은 어디로 갑니까?”
 마침, 집 주인은 영원사나 문수암으로 가는 우편물을 집배원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스님이 오면 전해주는 촌부였다. 집 주인 촌부가 놀랐다.

“스님, 오늘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눈이 오는 데다 날이 곧 어두워집니다. 고무신을 신고 산에 오르다니 위험천만합니다.”

“거사님, 저는 산길을 잘 탐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법이 완강하게 산길을 오르겠다고 하자 촌부에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스님이 올라가겠다고 하니 별 수 없습니다만 산길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법은 오직 해암스님만 생각하고 있었다. ‘참선공부만 하는 수좌스님’이라는 데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출가한 이후 등을 방바닥에 한 번도 대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신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분은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성법은 여러 가지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한사라도 빨리 문수암에 도착하여 해암스님을 친견하고 싶었다.

눈 쌓인 산길로 들어선 성법은 쉬지 않고 올라갔다. 발이 되자 다행히 눈발이 그치고 있었다. 손전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법은 부처님 가피라고 믿었다. 밤하늘에 관세음보살 얼굴처럼 둥그런 달이 뜨고 있었다. 달빛은 눈 덮인 산길을 더 환하게 했다.

성법은 무서운 생각이 들면 <반야심경>을 큰 소리로 독경했다. <천수경>도 외었다. 그런데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상무주암이 나와야 하는데 산길은 끝이 없었다. 눈길에 무릎까지 빠지고 했다. 지리산 정상으로 갈수록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성법은 오던 길을 되짚으며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내려갔다. 눈과 땀으로 젖은 장삼에는

“큰스님.”
 그러나 조용했다. 눈 속에 갇힌 암자는 말 그대로 적막이었다. 부엌 뒤편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큰스님께서서는 불을 때고 있을지 모른다.”
 성법은 중얼거리며 부엌 쪽으로 갔다. 과연 해암스님이 부엌문을 열어놓은 채 불을 때고 있었다. 성법이 인기척을 냈지만 해암스님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야궁이에 썩은 나뭇가지를 넣고 있었다. 화부처럼 불을 때고 있었다. 갑자기 도깨비처럼 나타난 성법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성법은 말 한 마디 없이 불만 때는 해암스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인은 저러는가 싶어 해암스님이 야속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산길이었다. 천근의 바위덩어리와 같은 무게를 느끼면서 가지고 온 겨울양말 한 켤레가 자신을 다독였다. 문득 성법은 스스로 묻고 답했다.

“그래, 나는 단 몇 시간 눈길을 헤맸지만 은사스님은 이 엄동설한에 기운 여름양말을 신고 정진하고 계시지 않겠나. 내가 지금 은사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듯 바람 속에 든 따뜻한 겨울양말을 신겨 드리는 것이다.”

성법은 해암스님이 불을 다 때 때까지 부엌문 밖에서 기다렸다. 지리산의 차가운 골바람이 어깨를 열게 했지만 견디었다. 그리고 보니 해암스님이 자신의 근거를 시험하는 것도 같았다.

“은사스님께서서는 지금 나에게 인유바라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말씀 없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이라라.”

삼십 분이 지나갔다. 성법은 석처럼 꼼짝 않고 기다렸다. 이윽고 해암스님이 야궁이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고는 일어섰다. 성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할장했다.

“스님, 해인사에서 온 성법입니다. 스님께 이미 사미계를 받았으나 처음으로 친견합니다.”

그래도 해암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부엌을 나와 인법당으로 들어갔다. 오라 가라 말은 없었지만 따라들어오라는 느낌이 들어 성법은 인법당 토방에 고무신을 가지런히 벗었다. 눈이 다시 희끗희끗 내렸다. 거친 골바람에 눈송이들이 마루로 쫓겨 들어왔다.

성법이 정식으로 삼배를 하자, 그제야 해암스님이 말했다.

“참선을 해야 산 중이시.”
 해암스님이 장좌불와를 하기 때문에 성법도 잠을 자지 못했다. 해암스님은 가만히 앉아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제자에게 밤새 설법을 했다. 성법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설법을 들었다.



그림 : 최문경

“누구나 욕심만 없으면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를 알게되는 숙명통 얻는다.”

욕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없다면 참선공부 안 해도 숙명통을 얻는다”

한다.
 이렇게 공부는 묘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혼자서 하다가 병이 나는 사람이 많다. 아주 간절한 생각, 정성스런 생각으로만 할 때부터 급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답답한 데에 대고 이렇듯, 하고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이 말은 답답한 공부를 하려는 말이 아니다. 답답한 데다 이렇듯 하려는 것은 판짓거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좌선이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욕심만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 - 삼세의 일을 다 알게 되는 숙명통을 얻는다. 욕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없다면 참선공부를 안 해도 숙명통을 얻는다.”

성법은 밤 11시 반부터 다섯 시간 동안 설법을 들었다. 얼었던 몸이 저절로 녹았다. 그러나 집된 무릎은 감각이 다시 무뎠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다리운동을 할 수도 없었다.

어느 새 창호에는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성법은 겨우 말을 꺼냈다.

“스님, 아침공양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공양을 하지 않으니 너나 먹거라.”
 성법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양식은 해암스님이 먹지 않으니 솥뚜껑이 닫혀있고, 이따금 스님들이 찾아오는지 곡식 통에 보리쌀이 조금 차 있었다. 반찬거리로는 새끼줄에 시래기 묶음이 달려 있고, 냄비에는 멸친 된장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잠시 후 해암스님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다.
 “아침공양을 왜 하지 않느냐.”
 “낮에 먹겠습니다.”

성법은 배가 몹시 고팠지만 아침공양을 하지 못했다. 시래기와 찬 된장국을 보는 순간 입맛이 싹 가셨던 것이다. 성법은 돌샘에서 나오는 찬물만 한 그릇 비웠다. 찬물이 빈 뱃속을 내려가며 쫄쫄 소리를 냈다.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지계는 암자 뒤에 있다. 아침공양 때가 지났으니 나무를 하러 가아시. 여기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한다.”

순간 성법은 눈앞이 아찔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해암스님의 말에 겁이 더러웠다. 그러나 해암스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성법은 지계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걸어갔다. 해암스님과 반대로 상무주암으로 가는 길로 갔다. 상무주암은 문수암과 달리 먹을 것이 풍부했다. 성법은 상무주암에서 보살이 주는 떡과 라면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밤에 잠자지 않고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 배는 부르지만 소화가 되지 않았다.

“배고픔은 상무주암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은사스님 앞에서 어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해암스님을 1주일 정도 시봉하고 강원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문수암에 왔지만 성법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이틀째를 맞이하는 밤에도 성법은 초저녁부터 밤 12시까지 해암스님의 설법을 들었다. 졸음이 쏟아져 무릎을 꼬집어도 견뎠다. 인법당에서 마주앉아 좌선하고 있으니 피를 낼 수도 없었다.

밥을 해 먹은 뒤 해암스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스님, 오늘은 해인사로 돌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어서 가봐라.”
 해암스님은 성법의 발걸음을 붙들지 않았다. 차비 삼천원을 주면서 문수암을 떠나라고 했다.

<계속>

해암이 있는 문수암으로 찾아간 성법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지는 해암에 겁이나 삼일째 되는 날 ‘거짓말’하고 해인사로 돌아가

살얼음이 끼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턱이 떨릴 정도로 추웠다. 다리에 힘이 빠지자 자꾸 넘어졌다. 고무신도 얼어 조금만 잘못 디디면 발바닥이 미끄러졌다. 그제야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성법은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산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데까지 휘둥 내려갔을 때는 기진맥진했다. 바람에 든 양말 한 켤레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웠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 바람을 벗어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바람을 벗을 수는 없었다. 그 안에 해암스님에게 선물할 겨울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어서였다.

성법은 겨울양말을 신고 있는 해암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 해암스님이 양말을 신고서는 웃고 있었다. 성법은 갈증 난 목을 눈으로 적시며 산길을 올라갔다. 마침내 상무주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문수암 불빛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상무주암 뒤편으로 뻗어 내려온 능선 너머에 문수암이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성법이 문수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다. 암자 마당 앞으로 가 합장하며 해암스님을 불렀다.

“...이 공부는 세상공부와 아주 다르다. 세상의 공부는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코로, 입으로, 몸으로, 또 번뇌 망상으로 하는데 이 공부는 그 반대로 한다. 이 공부는 상대가 끊어진 무심공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았던 일도 다 잊고, 심지어 부처님 말씀도 다 버려야 한다. 전에 알았던 것을 조금만 들춰내려도 병이 되고 결국 공부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묘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공부하고 달라서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없어서 재미도 없다.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길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 길을 기웃거리면 고생만 하지 이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져버린다.

답답한 한 군데를 잡아 ‘이렇듯’을 공부하되, 욕심 내가지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몸에도 힘을 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병이 난다. 몸에도 힘을 준다던지 욕심 사납게 빨리 깨쳐야지 하고 공부하는 것은 헛공부일 뿐, 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용맹스럽게 화두공부하라고 하니까 막 힘부터 내는데, 그것은 간절하게 정성껏 하라는 말이지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미묘법(微妙法)이라고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